

# 국 어

문 1. 다음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보기>의 예를 옳게 구분한 것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 기> —

ㄱ. 지붕                      ㄴ. 의논                      ㄷ. 타향살이  
ㄹ. 오세요                  ㅁ. 합격률                  ㅂ. 불이다

‘소리대로 적은 원칙’에 따른 예

‘어법에 맞도록 한 원칙’에 따른 예

- |   |         |         |
|---|---------|---------|
| ① | ㄱ, ㄴ, ㄷ | ㄷ, ㅁ, ㅂ |
| ② | ㄱ, ㄴ, ㅁ | ㄷ, ㄹ, ㅂ |
| ③ | ㄴ, ㄷ, ㅂ | ㄱ, ㄷ, ㅁ |
| ④ | ㄷ, ㅁ, ㅂ | ㄱ, ㄴ, ㄷ |

문 2. 어문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기여하고저, 빠드렁니, 돌(‘첫 생일’), Nakdonggang(‘낙동강’)
- ② 퍼분다, 처부수다, 수뚱지, Daegwallyeong(‘대관령’)
- ③ 안성마춤, 삶쟁이, 더우기, 지그재크(‘zigzag’)
- ④ 고샅, 일찍이, 굶주리다, 빠리(‘Paris’)

문 3. ㉠ ~ ㉣ 중 문맥상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상은 제상을 제외하고는 판 둘레에 최소 ㉠순가락총 폭만큼의 ㉡운두가 둘러 있다. 그것은 첫째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함이요, 둘째는 거기에 걸쳐 놓은 수저를 신경 안 쓰고 집어 올려 쓸 수 있게 하려 하는 배려에서 이다. 둘레가 ㉢도두룩하게 ㉣내둘리지 않고 막 꿇긴 식탁은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지기가 일쑤고, 수저 꺾을 따로 놓아야 수저를 편하게 집을 수 있다.

- |     |     |
|-----|-----|
| ① ㉠ | ② ㉡ |
| ③ ㉢ | ④ ㉣ |

문 4. 밑줄 친 부분의 연결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야 하는 시청 직원들은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
- ② 구조조정을 할 때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은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주인 의식, 곧 회사 일과 개인적인 일을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 ③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인 쥐는 ER(형질 내세망)의 스트레스가 증가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태는 비만이 발생한 상황에서 ER이 위축되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④ 한 증권사의 담당자는 내년 초 주가지표에 대해 2,000포인트 돌파를 외치기도 하고, 다른 증권사의 담당자는 연내 초강세장의 도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오던 증권사도 아직은 관망을 해야할 때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 5. 밑줄 친 부분을 사자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어젯밤 열한 시 경, 시내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김모 씨가 계산을 할 때가 되자 갑자기, “이렇게 값이 싼 것은 나를 우습게 봐서가 아니냐?”며 트집을 잡고, 설명하려던 가게 주인을 우산 꼭지로 찌르고, 유리 진열장 등을 망치로 부수다가, 달려온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비싼 음식을 싹쓸 먹었고 지불할 돈도 얼마든지 갖고 있는데, 요금이 너무 싸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 |        |        |
|--------|--------|
| ① 賊反荷杖 | ② 牽強附會 |
| ③ 小貪大失 | ④ 反面教師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6 ~ 문 7]

이주노동자들이 사냥개에게 쫓기는 약한 동물들처럼 내몰리는 모습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재들은 우리 시민이 아니잖아.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 피부색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재들이 우리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어.’ 한국은 동질적인 사회이고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에서는 이들의 인권이 숨 쉴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시민권이 없다. 시민권은 나누고 분리하는 개념이다. 세금을 낸 시민이 정부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시민권이라면 그리고 빨셈을 잘하는 것이 시민권이라면, 인권은 포괄하고 더하는 개념이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처럼 겉으로는 시민이지만 사실상 시민 대접을 받지 못하는 차별받는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설계하는 게 인권의 개념이다. 시민권 개념 안에서 인권을 바라보면 창문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창문(window)의 어원은 ‘바람의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다. 이 뜻을 따르면 창문은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는 바람의 눈으로 안을 들여다 보는 게 된다. 인권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인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의무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구성원끼리 서로 ㉢배척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시민권보다 서로의 이해를 통해 통합으로 나아가는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

문 6. 밑줄 친 어휘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① ㉠ - 墜落 | ② ㉡ - 待遇 |
| ③ ㉢ - 排斥 | ④ ㉣ - 葛藤 |

문 7. 위의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 ① 내다보기      | - | 들여다보기     |
| ② 분리의 원칙    | - | 포괄의 원칙    |
| ③ 동질성 조장    | - | 이질성 조장    |
| ④ 시민 중심의 설계 | - | 인권 중심의 설계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5 ~ 문 16]

군청에서는 관 위주 행정의 관행을 없애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감동 행정’을 펼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가) 특히 군정에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군민과 공직자를 상대로 군민 행복을 위한 ㉠ 참신한 의견을 ㉡ 수렴하고 ‘공직자 변화 노력 ㉢ 선포식’을 열기로 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나) 김 군수는 “공무원들의 변화만이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낡은 사고, 관 위주 행정의 낡은 관행을 우선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체 공직자가 자기 계발과 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 다음 달 정례 조회 때 있을 공직자 변화 노력 선포식에서는 전체 공직자가 결의문을 채택해 자기 개혁에 적극 나서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라) 특히 읍주 운전자 차량에 동승하여 읍주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못해 읍주운전에 이르게 한 공무원도 사안에 따라 ㉣ 문책할 방침이다.

문 15. 밑줄 친 어휘의 한자 표기로 모두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① 懺新 | 收斂 | 宣布 | 聞責 |
| ② 斬新 | 收斂 | 宣布 | 問責 |
| ③ 斬新 | 受斂 | 宣布 | 聞責 |
| ④ 懺新 | 受斂 | 宣布 | 問責 |

문 16. 글의 통일성으로 보아 빼야 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가) | ② (나) |
| ③ (다) | ④ (라) |

문 17.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역사적으로 새로운 가치의 편에서 봐야 하며, 무엇이 근거이고, 무엇이 조건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준칙을 강조하는 것은 기자들의 기사 작성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 관계에 따라 특정 보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사가 보도되게 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으므로 진실 보도는 일반적으로 수난의 길을 걷게 마련이다. 신문은 스스로 자신들의 임무가 ‘사실 보도’라고 말한다.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 신문은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려는 권력과 이익 집단, 그 구속과 억압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① 진실 보도를 위하여 구속과 억압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②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
- ③ 신문의 임무는 ‘사실 보도’이나, 진실 보도는 수난의 길을 걷는다.
- ④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하여 전체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문 18. 다음 시조들 중 창작 의도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가) 청산은 어이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굶지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 하리라
- (나) 어버이 사라신 제 섬길일란 다 하여라.  
디나간 후면 애닦다 엇디 하리  
평생에 고틀 못할 일이 잇뿐인가 하노라.
- (다)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푸듯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은 나도 불려 보리라.
- (라) 내해 조타 하고 남 슬혼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고 義 아니면 좇지 말니  
우리는 天性을 직회여 삼긴 대로 하리라.

- |       |       |
|-------|-------|
| ① (가) | ② (나) |
| ③ (다) | ④ (라) |

문 19. 다음 문장들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이는 말레이 민족 위주의 우월적 민족주의 경향이 생기면서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데 뒤쳐진 경험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대비되기도 한다.
- ㄴ.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긍정적이다.
- ㄷ. 영어 공용화 국가의 상황을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 공용화 실시는 인종 중심적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ㄹ. 그러나 영어 공용화 국가는 모두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단일 민족 단일 모국어 국가와는 처한 환경이 많이 다르다.
- ㅁ. 특히, 싱가포르인들은 영어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어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성을 일찍부터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 |             |             |
|-------------|-------------|
| ① ㄷ－ㄱ－ㄹ－ㄱ－ㄴ | ② ㄷ－ㄴ－ㄱ－ㄱ－ㄹ |
| ③ ㄷ－ㄱ－ㄴ－ㄹ－ㄱ | ④ ㄷ－ㄴ－ㄱ－ㄱ－ㄹ |

문 20. 밑줄 친 부분의 말하기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형님 놀부 댁에서 쫓겨나 마을 어구에 당도하니 여러 아이놈들이 밥 달라는 소리가 귀를 찢는다. 그러더니 홍보 큰아들이 나왔으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또 어찌하여 이상한 목소리를 내느냐?”  
“어머니 아버지, 날 장가 좀 들여주요.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 갑니다.”  
홍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더욱 기가 막히더라.

- ①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권자에게) “저는 여러분의 충실한 대변인이 되고 싶지 출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 ② (약속에 늦게 와서 기다리는 친구에게) “미안해, 난 일찍 출발했는데 길이 워낙 막혀서 말이야.”
- ③ (자꾸 그릇을 깨는 동생에게) “아니, 너 혹시 그릇 집에 뭐 잘 보일 일이 있는 거 아냐?”
- ④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아이에게) “그래도 걸을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